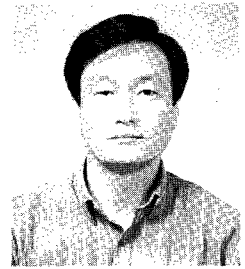


“닭고기 수입권이 공매되는 것을 보면서~”



엄재국
영농장대표

최초의 우주왕복선이 출발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대단한 기대로 마음을 졸였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카운트다운 즉, 시장개방의 초읽기가 끝나 우리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물론 이미 상당기간 전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었고 또 무성하였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그동안 차근차근 기초를 닦고 체제를 정비한 계열업체나 생산농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는 지금의 상태는 불안하고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지난 겨울 유례없는 질병전파로 생산물이 큰 타격을 입어 품귀수준까지 이르거나 아직까지

도 한탕주의적 사고에서 깨어나지 못한 생산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큰일을 앞두고 너무 대비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물론 시장개방의 파도는 우리 축산분야만이 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주변의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부터 외세의 바람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 대기업에서조차 무한경쟁을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피부에 실감나게 와닿는 것을 볼 때 가는데 까지 가보지는 식의 막무가내적인 현실 안주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동안은 너무 성급하게 다른 사람 앞서 움직이는 것이 불이익을 초래한 적이 있기는 하

였지만, 지금은 발등의 불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된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말 난감하고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이다. 그러나 얼마전 처럼 반대만 부르짖는데서 답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가장 현명한 대응책은 변화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먼저 정신의 변화, 사고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주변의 많은 업체나 기업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되는 것을 심심찮게 보고있다.

우리 육계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전에 어떤 사람이 농담가운데 우리 축산업은 질병이 없으면 재미없을 것이란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농담도 수입개방 앞에서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제 우리의 경쟁은 이웃에 있는 양계장도 더 멀리 떨어진 다른지방의 양계업자도 아닐 것이다. 바로 가장 경쟁력있는 국가와의 싸움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와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덩치큰 거인과의 씨름에서 승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승패의 결과가 항상 덩치에만 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술과 지혜를 사용하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 그동안 육계업을 해오신 분들은 사업이 도전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한 역량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얼마전에 돌아본 이스라엘의 농업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비가 거의 오지않는 악조건 속에서 나무를 심고 나무한그루 마다 파이프를 연결하여 계속 물방울을 떨어뜨려 주는 것을 보고 농업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과 생존을 위한 투쟁

“

일전에 어떤 사람이
농담가운데 우리 축산업은
질병이 없으면
재미없을 것이란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농담도
수입개방 앞에서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

을 볼 수 있었다. 바로 그들과 같은 근면성, 창의적인 정신, 끈기와 기술개발 등 이러한 정신이 경쟁력을 갖추는 기본이라 생각된다.

또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은 당연히 질병예방에 대한 것이다. 질병의 책임은 첫째 육계사양가 그리고 종계장, 더 나아가 행정관서, 학계라고 감히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서 본 것은 도계장에서 질병에 감염된 닭이 검출되었을 경우 바로 출하한 농장으로 그리고 종계까지 추적해서 정부의 보상하에 종계를 도태시켜 질병을 박멸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결과 그 나라에는 현재 C.R.D가 없으며, 지난 2년간 ND도 발병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부러움과 아울러 큰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산학의 협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 여럿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누가 교수인지 농민인

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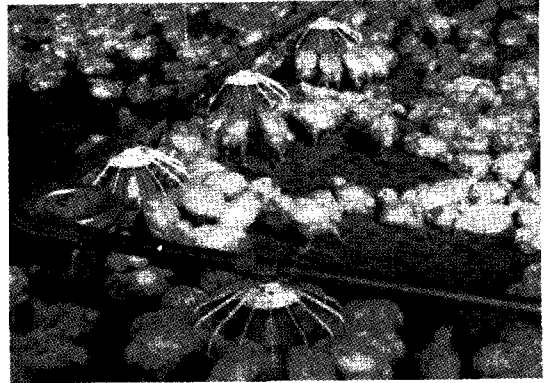
물론 우리의 현실에서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어쩔 수 없는 변화의 바람때문에 모든 분야가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점에서 희망을 가져본다.

그리고 시설개선과 정책적인 뒷받침에서의 변화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 육계 사육 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가격등락과 한탕주의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이제는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물러서든지 혹은 지금의 시설에서도 몇배의 정열을 쏟아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하든지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물론 투자가 최첨단, 최신 시설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외국의 경우와도 비교하여 우리에게 꼭 맞는 시설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고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쪽으로 자신이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공급이 뒤따르지 않는 계획은 물거품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정부 쪽에서는 요란스럽게 지원책을 부르짖긴 했지만 막상 육계 생산자중에 도움을 받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현실에 맞는 과감한 정책변화와 시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생산자 조직의 변화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활동하는 많은 생산자 조직이 거듭나는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조직내의



구성원 개개인과 축산농민과 같이 생존할 길이 무엇인가 찾아 발로 뛰면서 머리로 생각하는 생존경쟁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일전에 방문했던 덴마크의 협동조합과 양계 협회 그리고, 이스라엘의 키브츠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생산자의 조직이 생산과 유통, 사료공장 등을 모두 운영하면서 단단한 기초위에 축산업이 서 있었고, 조직체의 직원들은 생산자와 일체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의 경우는 그런 기초가 없으므로 흉내를 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 환경에 맞게 더욱 발전된 방법으로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막다른 골목에 섰던 이스라엘이 황량한 사막에 기적을 이룩한 것처럼 우리도 역경을 기회로 만들어 육계업의 생존과 발전의 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양계**

